

SF에 등장하는 다양한 과학자상(像)

미친 과학자 ... 그러나 현대문명의 일등공신

SF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 중의 하나가 바로 '미친 과학자', 즉 '매드 사이언티스트(mad scientist)'이다. 하나의 정형화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이 과학자상은 대중들이 과학자들에게 갖는 선입감이나 경외심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예라고 볼 수 있다.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연구실에 틀어박혀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실험을 거듭하는 인물.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 것인지 적잖게 불안감을 자아내게 하지만, 사실 이런 과학자들이야말로 오늘날의 눈부신 현대 문명을 낳은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의 최전선에서 금기를 넘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용감한 개척자들이다. 다만 너무나 앞선 탓에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한 채 희생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지킬박사와 하이드씨」나 「프랑켄슈타인」 등등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의 고전인 셈이다.

그 시대의 변화 반영

영국 작가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현대 SF소설의 시조로 꼽히기도 하는 고전 걸작인데, 흔히 이 작품의 제목은 내용에 등장하는 괴물의 이름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다.

프랑켄슈타인이 걸작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 상상력 때문만이 아니라 탁월한 구성과 은유기법 때문이다. 추한 외모를 지녔다고 해서 괴물을 박해하는 대다수 인간들의 위선, 그리고 괴물 그 자체로 대표되는 현대 과학기술의 불안한 가능성 등등. 그러나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과학적 책임을 다하려는 주인공 과학자의 최후 모습일 것이다. 영화로도 제작된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박사는 괴물이 북극권으로 도망치자 빙하 속으로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듯 SF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단순히 광기에 찬 미친 과학자의 모습만은 아니다. 탐구욕과 금기 사이에서 고뇌하는 과학자, 책임감을 느끼며 세계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 과학자 등 여러 가지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자상의 변천은 어느 정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한다.

현대 SF문학의 아버지로 꼽히는 H.G. 웰즈는 「모로박사의 섬(1896)」에서 과학적 탐구를 위해서라면 금기도 서슴없이 깨뜨리는 고집센 외골수 과학자를 등장시켰다. 주울 베르느의 「해저 2만리」에 나오는 네모선장 역시 새로운 과학기술로 추진되는 잠수함을 자신의 소신 관철에 이용한다. 이처럼 초창기 SF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대

개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광기를 넘나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에디슨 이후 영웅으로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발명왕 에디슨이 유명해지자 새로운 영웅으로서의 과학자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은 20세기까지 이어져서 파스퇴르나 아인슈타인의 업적이 SF문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과학자는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어나가고 또한 우주의 신비를 풀 인류의 희망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1945년에 원자폭탄이 터지면서 다시금 불길한 쪽으로 크나큰 방향전환을 했고, 결국 오늘날엔 다양한 캐릭터들이 혼재된 과학자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악몽으로 만들 수도 있는게 과학기술이며, 누구보다도 과학자들 스스로가 그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 II'의 컴퓨터 과학자는 자신이 개발한 마이크로 칩을 스스로 파괴하는 결단을 내리며, 또 '워게임 Wargames(1983)'에서 세계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컴퓨터 핵전쟁 프로그램을 짰 과학자 역시 스스로를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혼자 은거하는 삶을 산다. 고전 걸작 SF영화인 '금지된 행성 The Forbidden Planet(1956)'에 나오는 과학자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외계인의 문명과

SF에서 많이 등장하는 캐릭터 중의 하나가 '미친 과학자'이다.

세상과 담을 쌓고 말도 안되는 황당무계한 실험을 거듭하는 인물, 때로는 '악당의 하수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과학자들이 오늘날의 눈부신 현대문명을 낳은 일등공신이 아닐 수 없다.

함께 자폭한다. 이 작품에서 사라진 외계인의 문명 유적을 연구하던 과학자는 지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장치를 발견하고 자신이 직접 그 기술을 받지만, 결국 인간의 마음 속에 잠재된 악마성이 발현되어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자 과감하게 스스로 최후를 맞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금기를 두려워않는 호기심과 탐구욕일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이론을 믿고 뛰어드는 과감함이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들로 하여금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또한 '브레인스톰 Brainstorm(1983)'이나 '변신 상태 Altered States(1980)'의 새로운 정신세계를 열어볼 수 있게 했다. '브레인스톰'의 과학자는 인간의 감각을 기록,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죽은 사람이 남긴 사후세계를 직접 느껴보려고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겪었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경험해야하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감수한다. 또한 '변신 상태'의 주인공 과학자는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원시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 직접 자기 자신의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미지의 영역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우주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다니는 모험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플라이(1986)'의 주인공 박사는 파리로 변해가는 비극적 상황에 처해서도 과학자로서의 기록과 관찰을 멈추지않는 비장한 모습까지 보여준다.

특히 '플라이'는 단순한 공포물의 차원을 넘어 주인공에 대한 질은 연민의 정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이 작품은 한 과학자가 자기 자신을 실험대상으로 삼아 연구에 몰두하던 중, 잘못하여 파리와 생체합성이 되어버린다는 설정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파리의 외모와 생태를 닮아간 끝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 시시각각 파리로 변해가면서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주인공은, 사회가 개개인에게 강요하는 원죄적인 악덕 앞에서 무력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 대다수의 자화상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또는 그렇듯 두꺼운 사회와 과학의 한계에 도전하는 과학자의 비참하지만 현실적인 운명을 암시한 것이기도 하다.

'악당의 하수인' 역할도

한편 SF 뿐만 아니라 주류 영화에서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과학자상은 '악당들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다크 시티(1998)'에 등장하는 의사는 외계인들 편에서 인간들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모종의 실험을 돕는다. 이러한

하수인형 과학자는 일찌기 테크노스릴러의 시초라 할 수 있는 '007 영화 시리즈'에서 단골로 등장한 바 있는데, 대개는 악당들에게 실컷 이용만 당한 뒤에 소모품처럼 목숨을 잃고 만다.

우리는 SF가 아닌 실제 역사에서 과학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했던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여 생전에 미국 정부로부터 줄곧 감시를 받아왔었다는 사실이 최근에 새삼 확인된 바 있다. 수소폭탄 개발에 공헌한 바 있는 오펜하이머는 그보다 더 심한 고초를 겪어서 간첩 혐의로 재판까지 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와같은 일은 더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다. 근년에만 해도 인간복제 문제로 나라 안팎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경우엔 모든 과학자들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군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다. 현대의 군사기술은 대부분 대량 살상무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군사기술산업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자연 및 환경생태와 함께 더불어 생존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모든 과학자들의 소명일 것이다. ㉟

朴相俊 <SF/과학해설가>